

학문연구와 교육, 항상 장인정신으로 임하는

## 이 순 형 서울의대 학장

**다** 방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을 일컬어 '탈런트'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한 분야의 깊이는 없다고 평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 서울의대 이순형 학장은, 일생을 함께 한 학문인 기생충학의 연구에서나 의사로서나 또 학교 책임자로서 조금도 어설프지 않은, 그야말로 각계의 일인지라 평을 듣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근면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에서 일인지가 된다는 장인정신을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 왔고, 학생이나 가족에게도 항상 그 점을 강조해 온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문학·예술 방면의 조예도 수준급이고, 민주적인 학사운영으로 학생·교수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소탈한 성격의 이순형 학장을 만나 학문연구와 교육, 건강증진에 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 기생충학을 평생의 학문으로 선택한 동기는?

의대를 졸업하면서 의사로서 남들이 하지 않는 큰 일 중의 하나를 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기생충병은 심각한 국민병 중의 하나였는데 비해, 기생충학 전공자는 너무 적더군요. 작고하신 서병설 박사님과, 임한중 박사님(현 건협회장)이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셨지요. 뜻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평소의 생각과, 교실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두분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주저없이 기생충학을 선택했습니다.

▶ 연구 측면에서 기억에 남고 보람있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학자로서 최고의 보람은 역시, 자기 분야의 연구 성과가 크고 뜻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보람이라면, 60년대부터 건협과 함께 회충을 비롯한 기생충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생충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짐노팔로이데스 서 등 신종 기생충을 발견하거나, 신종은 아니지만 흑열병·필리핀 간모선충 등의 국내 첫 감염례를 발견해 치료하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학교 행정가로서의 소신과 방침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 자식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부지런할 것과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남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거듭하자는 것이지요. 교육 혹은 교

육자는, 학생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행정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분명하게 기릴 줄 알고 항상 공을 사에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만연한 집단 혹은 개인 이기주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이웃·학교·사회·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자리가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명예로워야 합니다.

▶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서구의 대학은 두가지 측면으로 그 역할이 구별됩니다. 하나는 교양있는 사회인을 배출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학에는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학은 그야말로 직업훈련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학문을 창출하는 것이 대학인데, 우리는 대학은 많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긍지를 높여가는 학문적 업적을 제대로 내는 대학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몇 대학이라도 학문연구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죠.

또 대학을 세우는 사람들이 대학을 장사하는 곳, 영리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 교육제도 개혁이나 대학운영 등과 관련하여 새 정부와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육에 개혁이 있으면 큰 일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것이 무엇이든 잘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장'만 되면 뭐든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방침이 무수히

▷ 6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71년~72년 미국 튜레인대학교 교수

▷ 73년~75년 서울의대 조교수

▷ 75년~80년 중앙의대 교수

▷ 81년~현재 서울의대 교수

▷ 85년~94년 서울의대 기생충학 주임교수

▷ 86년~97년 서울의대 풍토병연구소장

▷ 88년~90년 서울의대 의학과장 및 교무담당학장보

▷ 94년~97년 의학교육연수원장

▷ 94년~현재 서울의대 학장

▷ 학회활동: 서울 기생충학회 회장, 기생충학잡지 편집위원장(현), 대한농촌의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화학요법학회·미국 기생충학회·미국 열대의학 및 위생학회·영국 왕립열대의학 및 위생학회·일본기생충학회 회원(현)

▷ 한국외과대학장 협의회 회장·감사 역임, 보사부 기생충 대책위원회 위원·대한의학회 학술이사 역임, 대한의사협회 이사·교육부 기초의학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현)

▷ 수상경력: 보사부장관표창, 대한기생충학회 학술상, 대한의학회 학술상, 국민훈장 동백장 외



바뀐 것도 이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하던 일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것은 보존하고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고, 사적인 공명심보다는 공적으로 국민·학생이 겪을 고통을 우선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제도도 정부 획일 방침보다는 조화롭게 역할분담을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등 우리 나라 보건의료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법으로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성·수요·공급계획의 균형을 잘 맞추고자 노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겁니다.

GNP 1만불 시대가 곧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도식적 판단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 의대 신설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 확장으로서 의사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의대 신설은 교육적인 목적과 의료측면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이

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몇몇 의대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은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대 신설은 교육 외적 목적은 철저히 배제하고, 기존의 의대만으로 의료인력 배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교수·학생들과 자주 대화하는 확장으로 알려지셨는데…….

무엇이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학교라는 큰 배를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기본 방침과 전문성을 토대로 선원들의 요구와 불평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급적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향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적 요구나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치명적·궁극적 문제는 명확히 구분합니다.

▶ 문학·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글을 쓰는 것은 나름대로

의 생존전략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언변이나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선택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한문 시간에 한자쓰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림그리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어느 것 하나 체계적으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성의 민감도가 예술의 본질이고 느낌을 표현하는 기술이 글이나 그림이라고 볼 때 저는 예술적 감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져서 건강엔 전혀 도움이 안되지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신체적 운동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합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과 국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것이 직업이든 취미이든, 일인자가 되자는 정신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행이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조금해 하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장인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국가나 교육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3